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인식 조사연구

A Survey of Citizens' Perceptions on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윤 희 윤(Hee-Yoon Yoon)*

오 선 경(Seonkyung Oh)**

이 재 민(Jaemin Lee)***

〈목 차〉

- | | |
|-----------------------|-------------------------|
| I. 서론 | 1. 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도서관의 이용실태 및 비이용 이유 |
| 2. 선행연구 및 인식조사 개관 | 3. 독서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비참여 이유 |
| II. 인식 조사대상과 분석방법 | 4. 도서관 확충(신설) 요망 지역 |
| 1. 조사대상과 방법 | 5. 인프라 충실화 및 이용제고 방안 |
| 2. 설문지 구성과 분석방법 | IV. 요약 및 결론 |
| III. 인식 조사결과의 분석 및 제안 | |

초 록

어느 지역이든 공공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기관,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서비스 대상인구에 대한 인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 이용실태와 비이용 이유, 독서프로그램 참여 및 비참여 이유, 도서관 확충(신설) 요망 지역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연구, 관계법령, 국민 독서실태조사, 전국문화기반 시설 총람, 대구시민 의식조사, 대구 도시브랜드 시민의식 조사, 광역시도 및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현황 등과 비교하여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충실화 및 이용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대구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정책, 시민 의식조사

ABSTRACT

Regardless of area, public libraries should establish its status a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 center, cultural enjoyment and lifelong learning space in close contact with everyday life.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survey the citizen's perception of the public library. In this study, researcher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erception of Daegu citizens including the weight and importance of public libraries, library use status and reasons for non-use, reading program participation and reasons for non-participation, and regions that require new library fac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s suggested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 of public library and to increase its use in conjunction with other relevant data, that i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es, related laws, national reading survey, national cultural infrastructure overview, Daegu citizen survey, Daegu city brand perception survey, and the status of public libraries in national and Daegu Metropolitan City.

Keywords: Public library, Daegu public library, Library policy, Citizens' perceptions survey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hy@daegu.ac.kr) (제1저자)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 (sk2898@hanmail.net) (교신저자)

*** 대구동구안심도서관 팀장 (cifl0401@gmail.com)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6년 5월 18일 •최초심사: 2016년 5월 28일 •계재확정: 2016년 6월 1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99-124,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9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비운영, 무료공개, 만인제공을 이념적 지주로 삼는 지방공공재이며 문화기반시설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공공도서관이 서비스 권역 내의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식 정보, 다양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때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설립·운영의 주체를 불문하고 지식정보, 문화생활, 평생학습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수를 확충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접근·이용이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최적 서비스가 제공될 때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센터, 문화향유의 거점, 평생학습의 산실,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요람, 커뮤니티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시는 오랫동안 교육·학술·문화도시를 표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경제’를 시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그 베이스캠프인 공공도서관의 핵심 인프라인 1개관당 서비스대상 인구, 1인당 장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15, 70-73). 이러한 취약성은 공공도서관 이용률, 독서율, 각종 프로그램서비스 참여율 등에서도 후순위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구시가 발주한 「대구사회조사」,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시민인식조사」 등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한 학술연구도 없다. 모든 공공도서관의 이용대상은 지역주민이므로 그들의 인식이 반영되지 않은 중장기 계획이나 서비스 방안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기관,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인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 이용실태와 비이용 이유, 독서프로그램 참여 및 비참여 이유, 도서관 확충요망 지역 등을 조사·분석하여 전국 최하위인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충실화 및 이용제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와 광역시도 및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현주소를 연계·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 전국 실태조사, 대구시민 의식조사 등과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및 인식조사 개관

지금까지 수행된 공공도서관 실태조사는 무수히 많지만, 지역주민(또는 이용자)의 의식조사나 인식연구로 제한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의식이나 인식조사는 시간이 경과하면 비교 데이터 또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2010년 이후의 주요 조사 및 연구를 중심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외국의 연구·조사

먼저 Nzivo(2012)는 케냐 성인(112명)의 공공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인식을 설문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응답자는 도서관 위치와 독서환경(96.4%), 타도서관과 비교한 요구 반영도(88%), 인터넷 접근(77.8%), 열람석과 미팅 공간(91.5%) 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Pew Research Center(2013)는 미국인(16세 이상 6,224명)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54%가 도서관을 이용하였고 커뮤니티에서 도서관을 매우 중시하였다. 폐관될 경우에 응답자의 90%는 커뮤니티에, 67%는 자신과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95%는 자료와 정보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95%는 독서와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며, 94%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Kayaoglu(2014)는 도서관 이용자(643명)를 대상으로 이스탄불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품질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된 방문이유는 교육적인 요구, 주이용자는 학생(18-29세)이었다. 응답자들은 도서관이 사회기본시설이므로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접근 제공과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주된 정보원은 도서관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였으며, 그 이유로 시간 부족, 인터넷 편의성, 도서관과 먼 거주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 부족 등을 피력하였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2015)은 성인(5,000명)의 공공도서관 이용실태(교통수단, 이용경험, 이용목적, 비이용 이유 등), 도서관 인식(역할, 폐관 영향, 서비스 중요도)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차(45%), 도보(24%) 순이며, 이용빈도는 월 1회(69%), 이용목적은 자료대출(81%)이 가장 높았고, 비이용 이유는 흥미 없음(36%), 책과 잡지의 개인구입(27%), 여유가 없음(19%), 인근에 도서관이 없음(17%)의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독서, 무료 대출·열람, 인터넷 이용,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폐관될 경우 본인·가족(31%)과 지역사회(41%)에 영향을 미치며, 무료대출(75%)을 가장 중시하였다.

나. 국내의 연구·조사

윤희윤(2010)은 대구 시민(700명)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공간 및 시설이용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서관의 개인적 비중과 중요성, 이용도, 접근성, 공간 및 시설이용)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대별, 거주지별로 이용 불만족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서관 이용도를 중심으로 관련변수를 상관 및 회귀분석하여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은희와 이지연(2011)은 스마트폰을 통한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208명) 및 면접(7명)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 이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e-Contents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스마트폰이 기존 서비스의 혁신보다 또 하나의 접근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장덕현과 강은영(2012)은 부산 시민(1,050명)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와 서비스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시민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민의 인식과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하여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생활권 중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인프라 구축, 디지털 서비스 확충, 자료입수의 신속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김하이나와 김기영(2014)은 인천 시민(219명)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자, 이용중단자, 비이용자에 대한 인식수준 차이 및 비이용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도출된 집단간 유의한 차이에 근거하여 이용중단자 및 비이용자의 인식에 대한 공통요인, 비이용요인 및 이용중단요인을 파악하여 이용자 집단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희수와 김기영(2014)은 인천시 기초자치단체(8개구와 2개군)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개 지역(원도심, 신도심, 도·농 복합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3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용행태, 인식 및 요구, 지역사회 평가,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방향 및 정책수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II. 인식 조사대상과 분석방법

1. 조사대상과 방법

<표 1>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수 산출결과

구분	인구수	표본수							
		계(%)	성별		연령별				
			남 자	여 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
남 구	163,319	27(7)	9	18	8	6	8	4	1
달서구	607,787	102(27)	35	67	21	20	28	21	12
동 구	348,348	58(15)	31	27	13	15	13	8	9
북 구	443,698	74(19)	26	48	10	16	23	14	11
서 구	210,099	35(9)	14	21	5	13	2	8	7
수성구	455,333	76(20)	25	51	21	20	12	20	3
중 구	78,802	13(3)	4	9	4	3	1	2	2
계(%)	2,307,386	385 (100)	144 (37)	241 (63)	82 (21)	93 (24)	87 (23)	77 (20)	46 (12)

조사대상은 2015년말을 기준으로 250만명에 달하는 대구 시민 중에서 18세 이상의 성인이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신뢰수준 95%, 허용가능한 최대오차 0.05, 모집단 비율 50%(0.5)로 설정하여 산출한 조사대상은 총 385명이다. 이를 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달성군¹⁾을 제외한 7개 자치단체(남구, 동구, 달서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의 인구수 비율을 기준으로 표집한 결과 및 인구통계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채택하였다.

2. 설문지 구성과 분석방법

먼저 설문지는 예비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²⁾ <표 2>와 같이 확정하였다. 즉, 5개 영역(인구통계적 특성, 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 도서관 이용실태, 독서프로그램 참여현황, 도서관 확충(신설) 요망 지역)으로 구분하고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내용과 문항(* 복수 응답)

구분	설문내용(문항번호)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1), 연령(2), 거주지(3)
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	도서관의 비중(4), 여러 지역사회 기관 중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5)
도서관 이용실태	도서관 이용도(6), 이용 목적(7), 비이용 이유(8), 평균 이용시간(9),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서비스*(10)
독서프로그램 참여현황	독서프로그램 참여(11), 참여한 독서프로그램(12), 참여하지 않은(못한) 이유(13), 향후 참여를 기대하는 독서프로그램(14)
도서관 확충(신설) 요망 지역	도서관 확충 또는 신설이 필요한 지역(15)

1) 1995년에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이관된 달성군은 실제 대구의 다른 기초자치단체(7개 구) 및 도심과 먼 거리에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문헌정보학과 교수 3인과 공공도서관 사서 2인에게 설문지 자문을 받음

다음으로 확정된 설문지는 2015년 3월에 약 10일간(3.12-3.22) 500부를 설문요원이 각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지역별로 배포하였고 400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부실한 15부(중고생 응답 4부 포함)를 제외한 총 385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은 'PASW Statistics 17'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만, 집단별(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차이검정이 필요한 경우는 인식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Ⅲ. 인식 조사결과와의 분석 및 제안

1. 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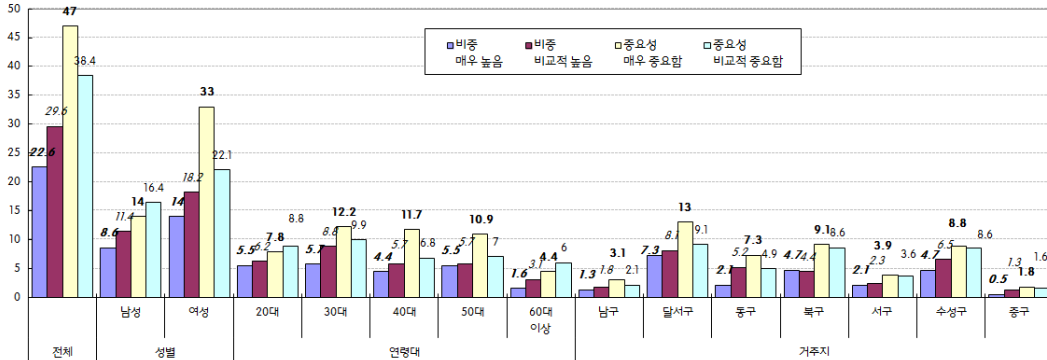
가. 응답비율의 분석과 검정

대구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공공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표 3> 및 <그림 1>과 같다.

<표 3> 대구 시민이 인식하는 공공도서관의 비중 및 중요성

구분	전체 (%)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비중	매우 높음	22.6	8.6	14.0	5.5	5.7	4.4	5.5	1.6	1.3	7.3	2.1	4.7	2.1	4.7	0.5
	비교적 높음	29.6	11.4	18.2	6.2	8.8	5.7	5.7	3.1	1.8	8.1	5.2	4.4	2.3	6.5	1.3
	보통	29.4	10.4	19.0	6.0	6.2	7.0	5.7	4.4	2.1	8.3	5.2	5.2	2.6	5.2	0.8
	비교적 낮음	11.9	5.5	6.5	2.9	2.9	3.1	1.3	1.8	1.6	1.8	1.6	2.6	1.6	2.1	0.8
	매우 낮음	6.5	1.6	4.9	0.8	0.5	2.3	1.8	1.0	0.3	1.0	1.0	2.3	0.5	1.3	0.0
중요도	매우 중요함	47.0	14.0	33.0	7.8	12.2	11.7	10.9	4.4	3.1	13.0	7.3	9.1	3.9	8.8	1.8
	비교적 중요함	38.4	16.4	22.1	8.8	9.9	6.8	7.0	6.0	2.1	9.1	4.9	8.6	3.6	8.6	1.6
	보통	12.7	6.8	6.0	4.7	1.6	3.1	2.1	1.3	1.3	3.4	2.6	1.6	1.6	2.3	0.0
	중요하지 않음	1.0	0.0	1.0	0.0	0.3	0.8	0.0	0.0	0.5	0.5	0.0	0.0	0.0	0.0	0.0
	매우 중요하지 않음	0.8	0.3	0.5	0.0	0.3	0.3	0.0	0.3	0.0	0.5	0.3	0.0	0.0	0.0	0.0

먼저 비중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52.2%(매우 높음 22.6%, 높음 29.6%)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 반면에 낮게 인식한 비율은 18.4%에 불과하였다. 비중이 높은 응답결과로 한정하여 성별로 비교하면 <그림 1>과 같이 여성(32.2%)이 남성(20.0%)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달서구, 수성구, 북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대구 시민이 높게 인식한 공공도서관의 비중 및 중요성에 대한 집단간 비교

다음으로 중요성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는 약 85.4%(매우 중요 47.0%, 중요 38.4%)로 매우 높은 반면에 중시하지 않는 비율은 1.8%(중요하지 않음 1.0%, 매우 중요하지 않음 0.8%)로 매우 적었다. 일상생활에 공공도서관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경우로 한정하여 성별로 비교하면 <그림 1>에서 여성(55.1%)이 남성(30.4%)보다 훨씬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달서구, 북구, 수성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대구 시민의 절반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공공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었다.

나. 응답평균의 분석과 검정

대구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공공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분석한 평균값은 <표 4>와 같다.

먼저 비중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3.50으로 중위수를 약간 상회하였다. 이를 집단별로 분석하면, 성별은 남자(3.53)가 여자(3.48) 보다 약간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달서구, 수성구, 중구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차이검정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성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응답평균은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균은 4.3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분석하면, 성별은 여자(4.37)가 남자(4.17) 보다 약간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중구, 북구, 수성구의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검정 결과, 성별과 거주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거주지별은 중구, 북구, 수성구의 순으로 공공도서관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표 4> 공공도서관의 비중 및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균 분석 및 차이검정

구분		비중			중요도		
		평균	t	유의확률	평균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3.53	.473	.637	4.17	-2.422	.016*
	여자	3.48			4.37		
구분		평균	F	유의확률	평균	F	유의확률
연령	20대	3.60	1.495	.203	4.15	.707	.587
	30대	3.68			4.39		
	40대	3.30			4.28		
	50대	3.58			4.44		
	60대 이상	3.20			4.20		
거주지	남 구	3.33	.432	.785	4.11	3.130	.015*
	달서구	3.71			4.26		
	동 구	3.38			4.26		
	북 구	3.34			4.39		
	서 구	3.43			4.26		
	수성구	3.57			4.33		
	중 구	3.46			4.54		
전체 평균		3.50	-	-	4.30	-	-

* 0.05 유의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요컨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공공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50으로 높은 편이며,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중요성은 평균 4.30으로 매우 높은 가운데 중구, 북구, 수성구의 여성이 다른 구 및 남성보다 공공도서관을 더 중시하였다.

2. 도서관의 이용실태 및 비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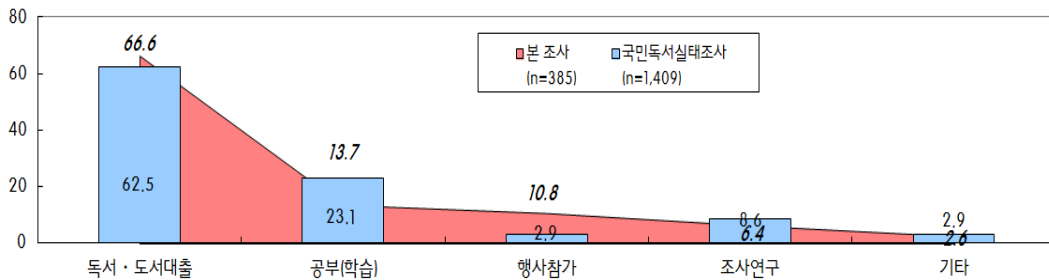
가. 이용목적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응답비율은 독서·도서대출(66.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공부(학습),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참가, 조사·연구의 순으로 높았다. 1순위 이용목적인 독서·도서대출을 집단별로 분석하면 성별은 여성(73.2%)이 남성(54.8%)보다 훨씬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남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실태와 비이용 이유(%)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거주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이용목적	독서·도서대출	66.6	54.8	73.2	64.3	80.7	79.5	57.7	33.3	72.7	68.5	64.8	69.7	53.8	66.7	58.3
	공부(학습)	13.7	21.0	9.5	18.6	8.4	7.7	12.7	28.6	9.1	7.6	25.9	7.6	30.8	9.7	33.3
	행사참가	10.8	9.7	11.4	4.3	4.8	7.7	19.7	23.8	4.5	14.1	5.6	10.6	11.5	12.5	8.3
	조사·연구	6.4	12.1	3.2	5.7	4.8	5.1	7.0	11.9	9.1	4.3	3.7	10.6	3.8	8.3	0.0
	기타	2.6	2.4	2.7	7.1	1.2	0.0	2.8	2.4	4.5	5.4	0.0	1.5	0.0	2.8	0.0
이용빈도	주 3회 이상	29.6	32.6	27.8	42.7	32.3	19.5	28.6	21.7	25.9	33.3	27.6	27.0	22.9	32.9	30.8
	주 1-2회	33.8	30.6	35.7	23.2	32.3	39.1	37.7	39.1	29.6	34.3	36.2	35.1	34.3	32.9	23.1
	월 1-2회	21.3	16.7	24.1	17.1	23.7	23.0	16.9	28.3	29.6	19.6	22.4	18.9	14.3	23.7	30.8
	2-3월 1회	5.5	8.3	3.7	4.9	2.2	10.3	7.8	0.0	0.0	3.9	6.9	8.1	0.0	7.9	7.7
	연 1-2회	4.2	4.9	3.7	6.1	6.5	3.4	2.6	0.0	7.4	2.9	1.7	5.4	14.3	0.0	7.7
	이용안함	5.7	6.9	5.0	6.1	3.2	4.6	6.5	10.9	7.4	5.9	5.2	5.4	14.3	2.6	0.0
평균 이용시간	1시간 미만	22.4	21.5	22.9	25.6	19.6	24.1	19.5	23.9	18.5	17.6	22.4	24.7	25.7	25.0	30.8
	1-2시간	39.8	34.0	43.3	34.1	42.4	46.0	36.4	39.1	48.1	51.0	25.9	41.1	34.3	35.5	30.8
	2-3시간	23.2	24.3	22.5	17.1	22.8	23.0	26.0	30.4	7.4	25.5	27.6	24.7	20.0	21.1	30.8
	3-4시간	5.5	8.3	3.8	8.5	2.2	3.4	10.4	2.2	14.8	2.9	12.1	1.4	5.7	5.3	0.0
	4시간 이상	9.1	11.8	7.5	14.6	13.0	3.4	7.8	4.3	11.1	2.9	12.1	8.2	14.3	13.2	7.7
서비스 이용경험	대출·반납	22.6	22.3	22.7	23.0	19.3	24.8	24.6	22.4	23.7	24.4	20.0	22.1	23.1	21.5	25.0
	독서	17.1	18.1	16.6	20.1	16.0	17.5	17.5	11.9	20.6	18.0	15.6	16.3	18.7	16.4	14.6
	잡지열람	12.1	15.3	10.3	11.6	13.6	10.9	12.7	10.4	14.4	11.4	14.1	10.5	10.4	13.2	10.4
	열람실	10.3	11.3	9.7	15.7	11.0	8.5	6.0	8.2	10.3	7.6	12.2	11.6	10.4	10.7	12.5
	평생학습프로그램	9.7	8.3	10.5	3.5	10.0	9.4	10.1	23.9	6.2	10.2	10.2	12.7	11.9	6.0	12.5
	문화프로그램	9.4	7.2	10.7	5.0	8.1	10.6	12.7	14.9	7.2	9.6	7.3	10.9	10.4	8.8	14.6
	시청각열람	7.3	8.3	6.7	7.9	7.6	7.3	6.7	6.0	9.3	6.9	7.8	5.8	9.0	7.6	6.3
	참고봉사	6.7	6.2	6.9	10.1	8.3	6.0	4.1	0.0	4.1	5.6	7.8	5.8	4.5	10.4	2.1
	독서프로그램	4.8	3.0	5.8	3.1	6.2	5.1	5.6	2.2	4.1	6.3	4.9	4.3	1.5	5.4	2.1
비이용이유	먼거리	28.7	23.7	31.5	23.1	39.1	36.2	15.6	23.5	33.4	19.2	45.6	31.3	17.6	50.0	14.3
	시간 없음	28.0	21.8	31.5	19.2	17.9	31.9	43.8	17.6	33.3	30.8	22.7	28.1	29.4	21.6	28.5
	주차공간 부족	11.3	9.1	12.5	7.7	14.3	8.5	9.4	23.5	0.0	5.8	13.6	15.6	11.8	7.1	0.0
	입을 책이 없음	9.2	12.7	7.4	7.7	10.7	10.6	9.4	5.9	0.0	13.5	13.6	9.4	0.0	7.1	0.0
	필요성 없음	5.3	9.1	3.2	7.7	3.6	6.4	0.0	11.8	33.3	3.8	0.0	3.1	17.6	0.0	0.0
	타도서관 이용	4.7	7.3	3.2	7.7	0.0	4.3	9.4	0.0	0.0	5.8	4.5	9.4	0.0	0.0	0.0
	프로그램 없음	2.7	3.6	2.1	7.7	3.6	0.0	3.1	0.0	0.0	5.8	0.0	0.0	5.9	0.0	0.0
	기타	2.7	5.5	1.1	11.5	0.0	0.0	3.1	0.0	0.0	5.8	0.0	0.0	0.0	7.1	14.3
	교통 불편	2.0	3.6	1.1	0.0	0.0	2.1	0.0	11.8	0.0	1.9	0.0	3.1	0.0	0.0	42.9
	사서 없음	2.0	0.0	3.2	7.7	3.6	0.0	0.0	0.0	0.0	3.8	0.0	0.0	5.9	0.0	0.0
	도서대여접 이용	1.3	0.0	2.1	0.0	3.6	0.0	3.1	0.0	0.0	1.9	0.0	0.0	5.9	0.0	0.0
	개관시간 짧음	0.7	1.8	0.0	0.0	0.0	0.0	0.0	5.9	0.0	0.0	0.0	0.0	0.0	7.1	0.0
	이용절차 힘들	0.7	1.8	0.0	0.0	3.6	0.0	0.0	0.0	0.0	0.0	0.0	0.0	5.9	0.0	0.0
찾기 어려움	0.7	0.0	1.1	0.0	0.0	0.0	3.1	0.0	0.0	1.9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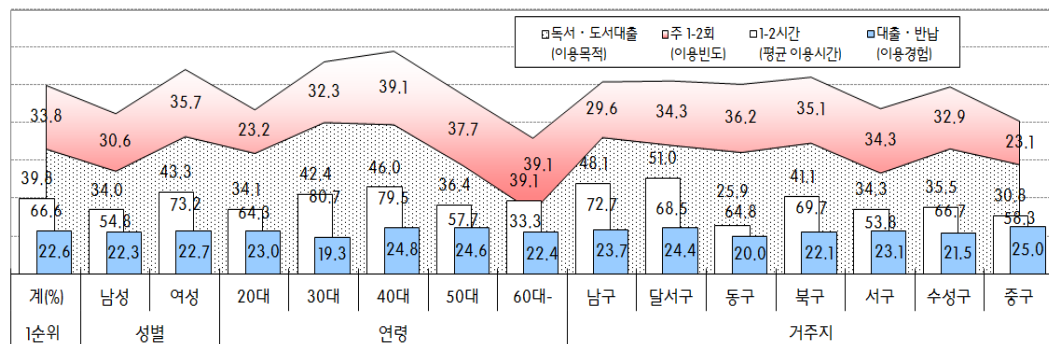
이러한 대구 시민의 인식결과를 전국적 조사인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5a, 137)와 비교한 <그림 2>를 보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양자 모두에서 매우 특이한 점은 공부(학습)가 이용목적의 2순위로 나타났는데, 그 배경은 도서관이 개인공부, 취업준비, 보고서 작성, 여가활용 등의 용도로 일반(자유)열람실을 제공하는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에 대한 전국조사와 본 조사의 비교

나. 이용빈도와 평균 이용시간

먼저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빈도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은 <표 5>와 같이 ‘주 1-2회’(33.8%)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주 3회 이상’, ‘월 1-2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주 1-2회’를 집단별로 분석하면 <그림 3>처럼 성별은 여성(73.2%)이 남성(54.8%)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 20대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남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대구 시민의 이용실태 1순위(이용목적, 이용빈도 및 평균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경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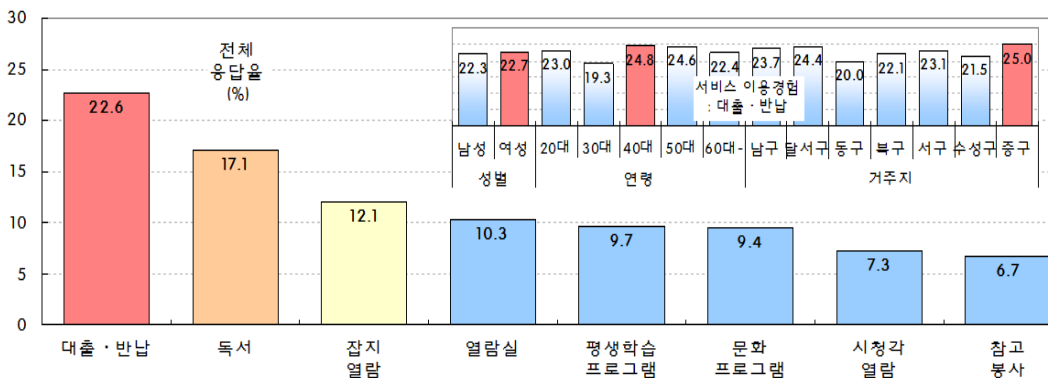
다음으로 평균 이용시간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은 ‘1-2시간’(39.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2-3시간’, ‘1시간 미만’, ‘4시간 이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1-2시간'을 집단별로 분석하면 성별로는 여성(43.3%)이 남성(34.0%)보다 약간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 30대, 50대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달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빈도는 '주 1-2회', 평균 이용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집단별 응답률에서는 여성이 남성이 높았으나, 연령대별 및 거주지별 응답률의 순위에서는 일관성이 없었다.

다. 서비스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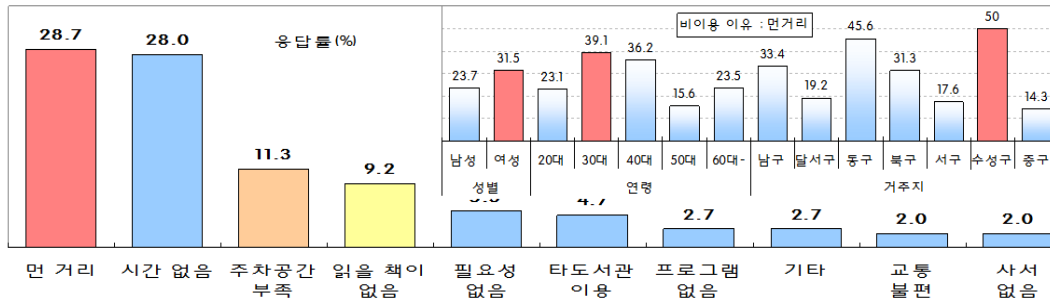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은 <표 5>와 같이 '대출·반납'(22.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독서', '잡지열람', '열람실 이용',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서비스 이용경험이 가장 많은 '대출·반납'을 집단별로 분석하면 <그림 4>처럼 성별은 여성(22.7%)이 남성(22.3%)보다 약간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 50대, 20대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중구, 달서구, 남구, 서구, 북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대구 시민의 서비스 이용경험 1순위(대출·반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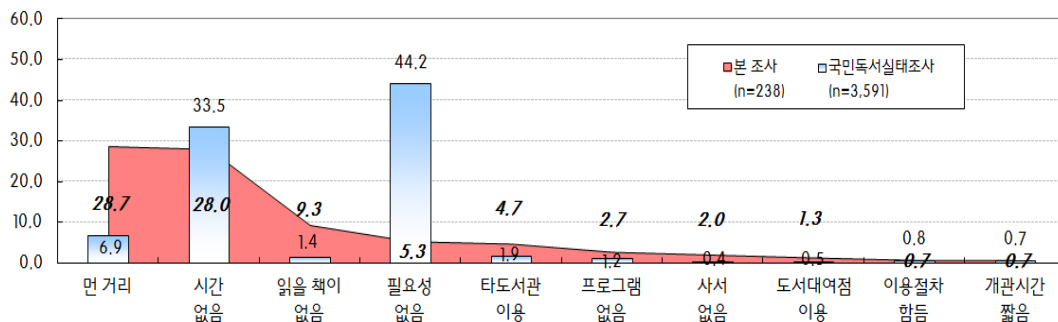
라. 비이용 이유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비이용 이유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은 <표 5>와 같이 '먼 거리'(28.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시간 없음', '주차공간 부족', '읽을 책이 없음', '이용할 필요성 없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이용 이유를 집단별로 분석하면 <그림 5>처럼 성별로는 여성(31.5%)이 남성(23.7%)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수성구, 동구, 남구, 북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비이용 이유

이러한 대구 시민의 인식결과를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5a, 149)의 공통문항과 비교한 <그림 6>을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전국조사에서 3순위(6.9%)에 그친 ‘먼 거리’의 경우, 대구 시민이 비이용 이유의 1순위(28.7%)로 인식한 것은 공공도서관수 부족에 따른 상대적 불만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비이용 이유는 전국조사에서 1순위(44.2%)로 등장한 ‘이용할 필요성 없음’이 대구에서는 4순위(5.3%)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6> 공공도서관 비이용 이유에 대한 전국조사와 본 조사의 비교

3. 독서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비참여 이유

가. 참여 여부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전체 응답의 경우, <표 6>과 같이 ‘참여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37.7%에 불과하였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44.8%)의 참여율이 남성(25.7%)보다 훨씬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50대, 4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달서구, 수성구, 서구, 중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를 불문하고 전체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점은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핵심기능 중의 하나인 독서프로그램이 대구 시민의 평생학습 내지 인문학 강좌의 요체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겹돌고 있음을 반증하므로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표 6> 대구 시민의 독서프로그램 참여 여부(%)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거주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있음	37.7	25.7	44.8	20.7	47.3	36.8	44.2	39.1	25.9	52.9	17.2	28.4	37.1	47.4	30.8
없음	62.3	74.3	55.2	79.3	52.7	63.2	55.8	60.9	74.1	47.1	82.8	71.6	62.9	52.6	69.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내용별 참여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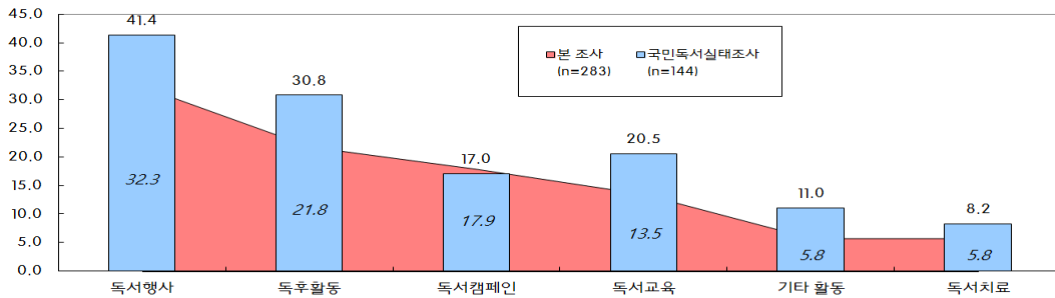
먼저 참여한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은 <표 7>과 같이 독서행사(35.3%)가 가장 높았고, 이어 독후활동, 독서캠페인, 독서교육의 순으로 높은 반면에 독서치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참여 1순위인 독서행사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37.7%)이 남성(28.6%)보다 훨씬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50대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동구, 수성구, 북구, 서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대구 시민의 독서프로그램 참여 및 비참여 이유(%)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거주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참여 프로그램	독후활동	21.8	19.0	22.8	20.0	11.1	27.3	30.6	22.7	25.0	27.6	0.0	17.4	7.1	21.6	75.0
	독서캠페인	17.9	11.9	20.2	10.0	20.0	36.4	11.1	4.5	50.0	22.4	16.7	21.7	7.1	8.1	0.0
	독서행사	35.3	28.6	37.7	55.0	44.4	21.2	38.9	13.6	0.0	22.4	66.7	43.5	35.7	48.6	25.0
	독서교육	13.5	23.8	9.6	5.0	17.8	12.1	5.6	27.3	0.0	13.8	8.3	13.0	28.6	13.5	0.0
	독서치료	5.8	4.8	6.1	0.0	4.4	3.0	8.3	13.6	0.0	8.6	8.3	0.0	14.3	2.7	0.0
	기타활동	5.8	11.9	3.5	10.0	2.2	0.0	5.6	18.2	25.0	5.2	0.0	4.3	7.1	5.4	0.0
기대 프로그램	독후활동	11.9	9.2	13.5	5.6	5.7	15.5	19.7	15.0	3.8	23.5	7.8	4.5	15.2	7.5	8.3
	독서캠페인	10.5	6.1	13.0	8.3	11.5	15.5	8.5	5.0	15.4	8.2	9.8	16.4	12.1	7.5	0.0
	독서행사	27.4	33.6	23.8	34.7	25.3	21.4	25.4	35.0	30.8	19.4	25.5	32.8	18.2	37.3	33.3
	독서교육	16.4	11.5	19.3	8.3	19.5	21.4	18.3	10.0	15.4	14.3	19.6	16.4	15.2	16.4	25.0
	독서치료	23.4	26.7	21.5	22.2	31.0	16.7	19.7	30.0	3.8	23.5	29.4	23.9	27.3	25.4	16.7
	기타활동	10.5	13.0	9.0	20.8	6.9	9.5	8.5	5.0	30.8	11.2	7.8	6.0	12.1	6.0	16.7
비참여 이유	책읽기 무관심	6.6	8.9	4.8	7.7	4.2	11.3	2.0	5.9	0.0	9.7	2.1	3.8	20.8	7.1	0.0
	기회가 없음	26.6	27.7	25.9	23.1	27.1	29.0	36.0	14.7	28.6	27.4	31.9	28.8	12.5	28.6	9.1
	프로그램 없음	12.4	17.0	8.8	20.0	14.6	4.8	14.0	5.9	4.8	17.7	8.5	9.6	20.8	11.9	9.1
	프로그램 모름	12.7	8.9	15.6	15.4	6.3	11.3	16.0	14.7	19.0	8.1	8.5	13.5	8.3	19.0	27.3
	시간여유 없음	39.0	34.8	42.2	30.8	43.8	43.5	30.0	52.9	42.9	32.3	48.9	40.4	37.5	31.0	54.5
기타	2.7	2.7	2.7	3.1	4.2	0.0	2.0	5.9	4.8	4.8	0.0	3.8	0.0	2.4	0.0	

다음으로 향후 참여를 기대하는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은 <표 7>과 같이 독

서행사(27.4%)가 가장 높았고, 이어 독서치료, 독서교육, 독후활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참여한 독서행사를 집단별로 분석하면 성별은 남성(33.6%)이 여성(23.8%)보다 훨씬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수성구, 중구, 북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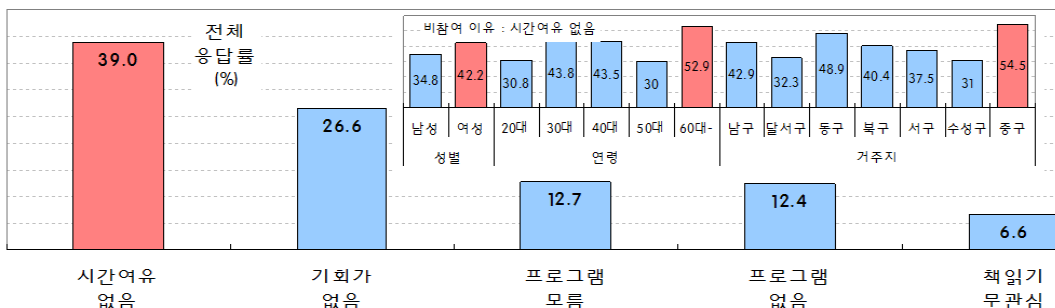
〈그림 7〉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전국조사와 본 조사의 비교

이러한 대구 시민의 인식결과를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5a, 151)와 비교한 <그림 7>을 보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독서교육’의 경우, 대구 시민의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저조하므로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대구 시민의 참여율이 가장 낮은 독서프로그램은 독서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참여를 기대하는 순위에서는 독서치료가 2순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구시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계층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

다. 비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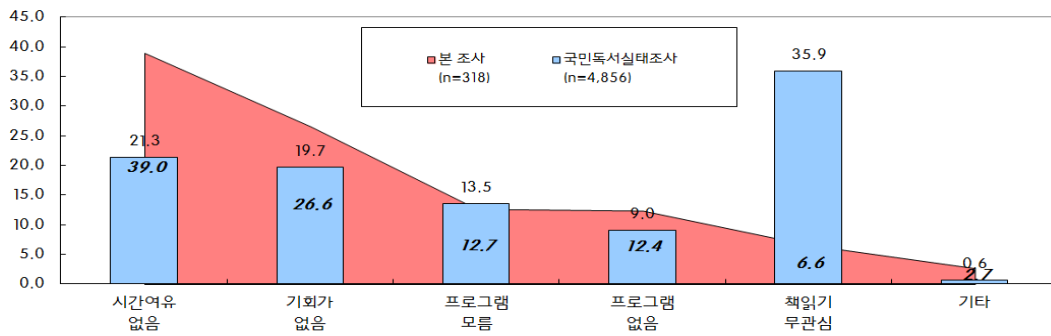
대구 시민의 독서프로그램 비참여 이유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은 <표 7>에서 ‘시간여유 없음’(39.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기회가 없음’, ‘프로그램 모름’, ‘프로그램 없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1순위 이유인 ‘시간여유 없음’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그림



〈그림 8〉 대구 시민의 독서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8>과 같이 성별은 여성(42.2%)이 남성(34.8%)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30대, 40대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중구, 동구, 남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구 시민의 인식결과를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5a, 157)와 비교한 <그림 9>를 보면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가운데 시민의 경제적 및 정신적 사정이 반영된 ‘시간여유 없음’은 공공도서관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외 이유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개발,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그림 9〉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비참여 이유에 대한 전국조사와 본 조사의 비교

4. 도서관 확충(신설) 요망 지역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공공도서관 확충(신설)이 가장 요망되는 지역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을 집계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남구(37.5%)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달서구, 북구, 동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남구의 응답비율을 집단별로 분석하면 <그림 10>과 같이 성별에서는 남성(42.4%)이 여성(34.6%)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50대의 순으로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남구, 중구, 수성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대구 시민이 인식한 공공도서관 확충(신설) 요망 지역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거주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중 구	4.5	2.8	5.5	3.7	3.3	2.3	6.6	8.9	3.7	1.0	3.4	1.4	0.0	7.9	38.5
동 구	11.0	13.9	9.3	12.2	14.3	9.2	5.3	15.6	0.0	4.9	46.4	4.2	5.7	7.9	0.0
서 구	8.9	8.3	9.3	11.0	9.9	3.4	9.2	13.3	3.7	5.9	0.0	1.4	65.7	3.9	0.0
남 구	37.5	42.4	34.6	47.6	41.8	31.0	34.2	28.9	85.2	26.5	39.3	26.4	25.7	46.1	61.5
북 구	13.9	11.8	15.6	3.7	13.2	23.0	13.2	17.8	3.7	0.0	1.8	65.3	2.9	3.9	0.0
수성구	5.0	5.6	4.6	6.1	1.1	4.6	9.2	4.4	0.0	0.0	3.6	1.4	0.0	21.1	0.0
달서구	15.7	15.3	16.0	12.2	13.2	24.1	17.1	8.9	3.7	53.9	0.0	0.0	0.0	5.3	0.0
달성군	3.4	0.7	5.1	3.7	3.3	2.3	5.3	2.2	0.0	7.8	3.6	0.0	0.0	3.9	0.0



〈그림 10〉 대구시 공공도서관 확충(신설) 요망 지역에 대한 전체 및 집단별 응답비율

이러한 대구 시민의 인식결과는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남구의 서비스 대상인구가 대구 시 평균(94,463명)을 훨씬 상회하는 163,492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2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존재하는 북구, 달성군, 동구와 달리 1개(남부도서관) 밖에 없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5b, 70-77). 그 결과, 남구 주민은 거주지별로 비교한 <표 3>에서의 공공도서관 비중(매우 높음)과 중요성(매우 중요함)에 대한 인식, <표 5>에서의 비이용 이유 중 '필요성 없음', <표 6>에서의 독서프로그램 비참여율 등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부연하면 공공도서관 인프라 부족이 최하위 인식도 및 참여율을 초래하고 있다.

〈표 9〉 대구시 기초단체별 공공도서관 현황(2015. 1 기준)

구 분	도서관수			인구 (명)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명)	이용자수 (명)
	공립	사립	계			
남 구	1	0	1	163,492	163,492	883,584
달서구	6	2	8	606,433	75,804	3,459,612
달성군	2	0	2	184,902	92,451	290,725
동 구	2	1	3	347,975	115,992	1,313,281
북 구	2	2	4	444,375	111,094	1,104,326
서 구	2	0	2	210,770	105,385	941,775
수성구	7	0	7	456,505	65,215	1,781,981
중 구	3	0	3	78,812	26,271	1,772,448
계(평균)	24	5	30	2,493,264	(94,463)	11,547,732

따라서 남구청과 대구시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때 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공공도서관 개체수가 가장 적은 남구를 비롯한 달서구, 북구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권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대상인구가 많을 경우, 인식수준 및 이용(참여)율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의 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5. 인프라 충실화 및 이용제고 방안

어느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은 지방준공공재이다. 이러한 재화적 특성이 정당하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핵심인프라(개체수, 장서, 전문인력, 시스템)의 충실화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공공도서관과 사서직은 체계적인 장서개발, 정교한 자료조직과 DB 구축,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근·이용기능 확대, 지식정보 및 프로그램 서비스의 극대화, 시설·공간의 편의성 보장, 후대를 위한 보존과 전수 등에 주력해야 한다. 그 결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동선에 위치하게 되고 이용도 및 참여율이 높아질 때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 문화향유 거점, 평생학습 산실, 정보격차해소 요람, 커뮤니티 공간, 지역문화 발전의 베이스캠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 내지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대구시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광역단위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법리적, 인식적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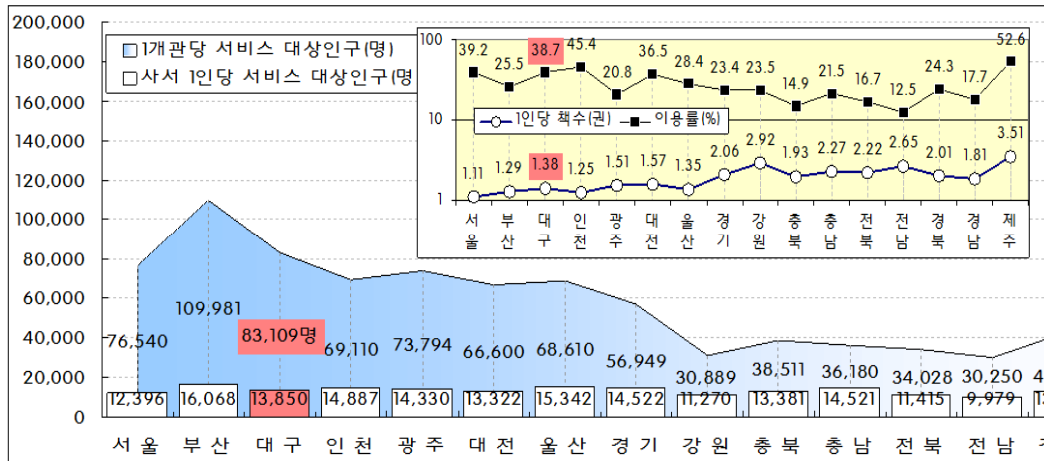
- ① 정책적 측면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주체는 대구시와 「도서관법」 제 22-23조에 규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래로 대구시는 공공도서관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수립·추진한 적이 없다. 그 결과로 초래된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를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한 <표 10> 및 <그림 11>

<표 10> 광역시도별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이용률 비교

시 도	인구 (천명)	도서관수		시설(㎡)		자료(권)		사서(명)		이용률 (%)
		계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명)	연면적	1천명당 연면적	자료수 (연간물 제외)	1인당 책수	사서수	1인당 서비스 대상인구	
서울	10,103	132	76,540	289,731	28.68	11,213,319	1.11	815	12,396	39.2
부산	3,519	32	109,981	99,666	28.32	4,536,786	1.29	219	16,068	25.5
대구	2,493	30	83,109 (15)*	81,973	32.88 (14)*	3,452,207	1.38 (13)*	180	13,850 (10)*	38.7
인천	2,903	42	69,110	96,819	33.35	3,620,661	1.25	195	14,887	45.4
광주	1,476	20	73,794	71,987	48.77	2,221,940	1.51	103	14,330	20.8
대전	1,532	23	66,600	68,014	44.40	2,402,238	1.57	115	13,322	36.5
울산	1,166	17	68,610	809,026	693.85	1,575,625	1.35	76	15,342	28.4
경기	12,358	217	56,949	710,943	57.53	25,401,554	2.06	851	14,522	23.4
강원	1,544	50	30,889	101,183	65.53	4,507,819	2.92	137	11,270	23.5
충북	1,579	41	38,511	93,697	59.34	3,045,457	1.93	118	13,381	14.9
충남	2,062	57	36,180	117,754	57.11	4,689,097	2.27	142	14,521	21.5
전북	1,872	55	34,028	118,495	63.30	4,155,468	2.22	164	11,415	16.7
전남	1,906	63	30,250	135,830	71.26	5,059,573	2.65	191	9,979	12.5
경북	2,701	64	42,200	127,606	47.24	5,428,703	2.01	201	13,438	24.3
경남	3,350	63	53,179	164,799	49.19	6,056,635	1.81	248	13,508	17.7
제주	607	21	28,921	47,774	78.71	2,128,812	3.51	59	10,288	52.6

* 전국 광역시도 대비 대구시 순위임

을 보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5, 450-451 ; 문화체육관광부 2015a,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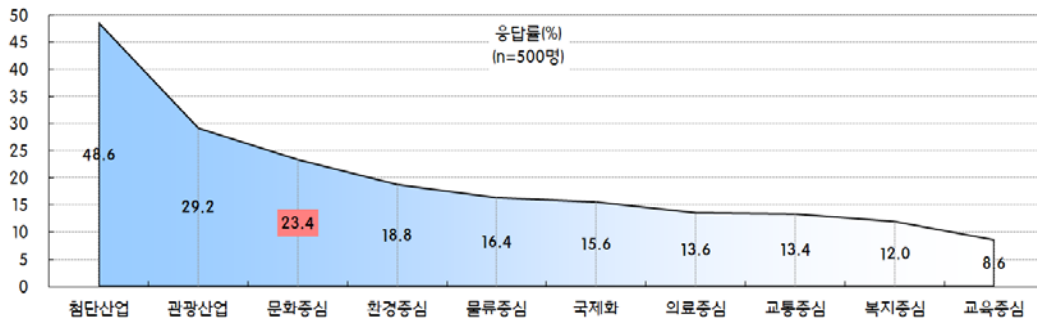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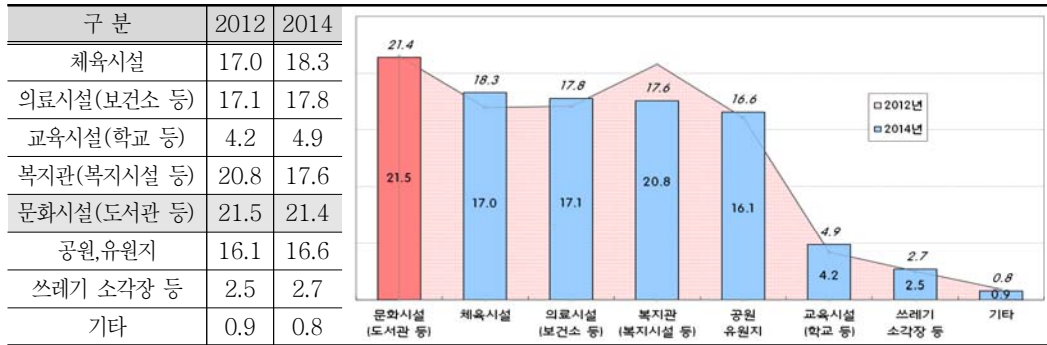


<그림 11> 광역시도별 공공도서관 주요 인프라 지표의 비교

- ② 법리적 측면에서 대구시는 「도서관법」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둔다)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6개 시도(대전, 경기, 인천, 광주, 서울, 전남)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대구시는 아직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표 9>에 집계한 것처럼 기초자치단체간 공공도서관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 ③ 인식적 측면에서는 대구시가 확충해야 할 공공시설에 대한 2012년과 2014년 조사결과를 비교한 <표 11>을 보면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대구광역시 2015a, 164-165). 그리고 2015년에 대구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강화해야 할 도시 이미지를 조사한 <그림 12>에서 ‘문화중심도시’(23.4%)가 첨단산업, 관광산업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대구광역시 2015b,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요체로서 문화중심도시를 견인해야 할 공공도서관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이처럼 정책적 측면에서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을 선도해야 할 지역대표도서관의 한계, 법리적 관점에서 대구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부재, 인식적 측면에서 시민 의식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 부실 등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개선방안이나 확충계획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환언하면 계획과 전략이 부실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인식수준이나 이용(참여)를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

<표 11> 대구시가 향후 확충해야 할 공공시설에 대한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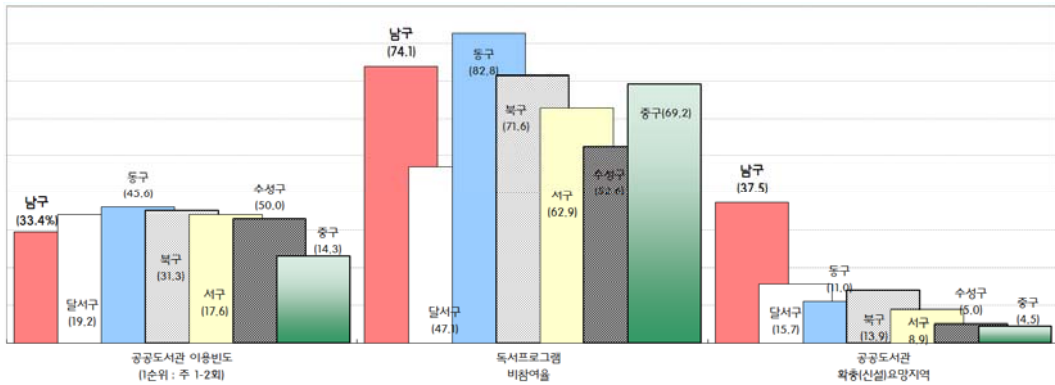


<그림 12> 대구시가 강화해야 할 도시 이미지에 대한 대구 시민의 응답 결과

둘째, 대구시는 시민이 인식하는 공공도서관 확충(신설) 요망 지역, 비중과 중요성, 이용빈도, 독서프로그램 비참여율을 연계·분석하여 거주지별 우선 확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거주지별로 주요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표 12> 및 <그림 13>을 보면 남구 주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비중과 중요성은 가장 낮았고, 중구의 정주 인구가 가장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공도서관 이용빈도(1순위-주 1-2회)도 남구가 가장 낮으며, 독서프로그램은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러한 낮은 인식과 이용(참여)은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도서관이 1개이기 때문에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가장 시급한 공공도서관 확충(신설) 지역으로 지목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와 남구청은 현재의 남부도서관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한 심리적 차폐가 심하고 주민 전체의 접근 편의성이 매우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법적 최저 기준인 264㎡를 초과하되 990㎡ 이하의 중소형 공공도서관 2개 정도를 조속히 설립·운영해야 한다.

〈표 12〉 대구 시민의 거주지별 공공도서관 비중과
중요성, 이용빈도, 비참여율, 확충(신설) 요망지역 비교

구분	인식		공공도서관 이용빈도 (1순위 : 주 1-2회)	독서프로그램 비참여율	공공도서관 확충(신설) 요망지역
	비중	중요성			
남 구	3.33	4.11	29.6	74.1	37.5
달서구	3.71	4.26	34.3	47.1	15.7
동 구	3.38	4.26	36.2	82.8	11.0
북 구	3.34	4.39	35.1	71.6	13.9
서 구	3.43	4.26	34.3	62.9	8.9
수성구	3.57	4.33	32.9	52.6	5.0
중 구	3.46	4.54	23.1	69.2	4.5
평균	3.50	4.30	32.2	62.3	-



〈그림 13〉 대구 시민의 거주지별 공공도서관 이용빈도,
독서프로그램 비참여율, 확충(신설) 요망지역 비교

셋째, 대구지역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인식수준 제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5점 척도로 조사한 시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비중은 <표 4>에서 평균 3.50점, 중요성은 평균 4.30점으로 각각 중위수보다 높았다. 그 가운데 거주지별 인식차가 유의하였던 중요성은 중구(4.54점), 북구(4.39점), 수성구(4.33점)가 평균을 상회한 반면에 달서구·동구·서구(4.26점), 남구(4.11점)는 평균보다 낮았다. 따라서 평균 이하로 응답한 거주지가 서비스 권역인 공공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인프라, 장서개발, 정보서비스, 각종 프로그램 등의 불만족 및 기대수준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중요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대구시 공공도서관은 저마다 비이용 및 비참여 이유에 주목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표 5>에서 시민의 개인적 사정(시간 없음)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비이용 이유는 열악한 시설(먼 거리, 주차공간 부족)과 부실한 장서개발(읽을 책이 없음), <표 7>에서 독서프로그램 비참여 이유는 다양성(기회 없음, 프로그램 모름) 및 홍보 부족(프로그램 모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수 부족에 따른 상대적 불만을 표출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설립 및 공간 확충을 요구하고, 지역주민의 현재적 요구와 자료의 내용적 가치를 정합하는 방향으로 장서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문정신 강화 및 평생학습의 필수 전제조건인 독서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여유 없음’을 제외하면 프로그램의 다양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참여율 제고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저조한 ‘독서교육’과 대구 시민의 기대순위가 높았던 ‘독서치료’는 서비스 계층별로 개발·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은 시민이 인식하는 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 이용현황과 참여실태, 비이용 및 비참여 이유를 연계·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상관분석한 <표 13>을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비중은 중요성, 평균 이용시간, 참여 프로그램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비중을 높게 인식하는 시민일수록 공공도서관을 중시하고 이용시간 및 참여하는 독서프로그램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요성은 평균 이용시간 및 기대하는 독서프로그램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어 공공도서관을 중시하는 시민일수록 이용시간이 많고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이용빈도는 비이용 이유 및 독서프로그램 참여여부, 평균 이용시간은 이용목적, 참여하는 독서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 이용목적, 참여여부는 기대하는 독서프로그램 및 비참여 이유와 각각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비이용 이유(먼 거리, 주차공간 부족, 입을 책이 없음)를 해소하여 이용빈도를 늘리고 독서프로그램의 비참여 이유(참여기회 없음, 프로그램이 없거나 모름)를 개선하여 참여율 및 기대수준을 높여야 이용 및 참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그 결과로 공공도서관의 비중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수 있다.

<표 13>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인식 및 이용 변수간 상관분석

구분	도서관 비중	도서관 중요성	도서관 이용실태				독서프로그램 참여현황			
			이용 빈도	평균 이용시간	이용 목적	비이용 이유	참여 여부	참여 프로그램	기대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도서관 비중	1	.422**	-.541**	.254**	.061	-.075	-.291**	.229**	-.054	-.073
도서관 중요성	.422**	1	-.259**	.209**	-.003	-.106	-.216**	.105	-.159**	.070
이용빈도	-.541**	-.259**	1	-.414**	-.136**	.190**	.247**	-.208**	.084	.070
평균 이용시간	.254**	.209**	-.414**	1	.141**	-.143*	-.106*	.094	-.070	.030
이용목적	.061	-.003	-.136**	.141**	1	.088	-.054	.164**	.064	.062
비이용 이유	-.075	-.106	.190**	-.143*	.088	1	.112	-.045	.032	.106
프로그램 참여여부	-.291**	-.216**	.247**	-.106*	-.054	.112	1	-.678**	.149**	.483**
참여 프로그램	.229**	.105	-.208**	.094	.164**	-.045	-.678**	1	.002	-.274**
기대 프로그램	-.054	-.159**	.084	-.070	.064	.032	.149**	.002	1	.154**
비참여 이유	-.073	.070	.070	.030	.062	.106	.483**	-.274**	.154**	1

** 0.01 유의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0.05 유의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요컨대 대구시는 그 동안 표방하여 왔던 ‘교육학술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2014년에 수립한 ‘대구장기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인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구현하려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가치 ‘대구대표도서관’의 설립을 계기로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초자치단체간 공공도서관 격차해소의 계기로 삼을 때 지방공공재로서의 공공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인문정신문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미사여구로 시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실천력을 강화해야 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 이용실태와 비이용 이유, 독서프로그램 참여 및 비참여 이유, 도서관 확충(신설) 요망 지역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 충실화, 인식 및 이용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공공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의 경우, 전자는 평균 3.50으로 높은 편이지만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후자는 평균 4.30으로 매우 높은 가운데 중구, 북구, 수성구의 여성이 다른 구 및 남성보다 공공도서관을 더 중시하였다.

다음으로 이용목적은 독서·도서대출(66.6%), 공부(학습),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참가, 조사·연구의 순으로 높았다. 1순위(독서·도서대출)를 집단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성(73.2%)이 남성(54.8%)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 20대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남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의 순으로 높았다. 공부(학습)가 2순위인 배경은 개인공부 등의 용도로 일반(자유)열람실을 제공하는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이용빈도는 ‘주 1-2회’, 평균 이용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았고 여성이 남성이 높았으나, 연령대별 및 거주지별 응답률 순위에서는 일관성이 없었다. 서비스 이용경험은 ‘대출·반납’(22.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독서’, ‘잡지열람’, ‘열람실 이용’,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 1순위인 ‘대출·반납’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성(22.7%)이 남성(22.3%)보다, 연령대별로는 40대, 50대, 20대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중구, 달서구, 남구, 서구, 북구의 순으로 높았다. 비이용 이유는 ‘먼 거리’(28.7%)가 가장 높았으며, 집단별 분석에서 성별로는 여성(31.5%)이 남성(23.7%)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수성구, 동구, 남구, 북구의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독서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7.7%에 불과하였고, 집단별 분석에서 성별은 여성(44.8%)이 남성(25.7%)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50대, 40대의 순으

로, 거주지별로는 달서구, 수성구, 서구, 중구의 순으로 높았다. 참여한 독서프로그램은 독서행사(35.3%), 독후활동, 독서캠페인, 독서교육의 순으로 높았고 독서치료가 가장 낮았다. 참여 1순위인 독서행사의 집단별 분석결과, 성별은 여성(37.7%)이 남성(28.6%)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50대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동구, 수성구, 북구, 서구의 순으로 높았다. 향후 기대하는 독서프로그램은 독서행사(27.4%), 독서치료, 독서교육, 독후활동의 순으로 높은 가운데 1순위를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33.6%)이 여성(23.8%)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수성구, 중구, 북구의 순으로 높았다. 비참여 이유는 '시간여유 없음'(39.0%)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회 없음', '프로그램 모름', '프로그램 없음' 등의 순으로 높았다. 1순위 이유인 '시간여유 없음'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성(42.2%)이 남성(34.8%)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30대, 40대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중구, 동구, 남구의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확충(신설)이 가장 요망되는 지역은 남구(37.5%)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달서구, 북구, 동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남구를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성(42.4%)이 여성(34.6%),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50대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남구, 중구, 수성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분석·요약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충실화, 인식 및 이용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구시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콘트롤 타워로 하는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을 선도해야 할 지역대표도서관의 한계, 대구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부재, 시민 의식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부실 등을 방지한 채 추진되는 개선 방안이나 확충계획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시민의 인식수준이나 이용(참여)를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대구시는 시민이 인식하는 공공도서관 확충(신설) 요망 지역, 비중과 중요성, 이용빈도, 독서프로그램 비참여율을 연계·분석하여 거주지별 우선 확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대구 시민은 남구를 가장 시급한 공공도서관 확충(신설) 지역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대구시와 남구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법적 최저 기준인 264㎡를 초과 하되 990㎡ 이하의 중소형 공공도서관을 조속히 설립·운영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인식수준 제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평균 4.30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거주지별로는 달서구·동구·서구(4.26점), 남구(4.11점)는 평균보다 낮았다. 따라서 평균 이하로 응답한 서비스 권역의 공공도서관은 불만족 및 기대수준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전제로 중요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공도서관은 비이용 및 비참여 이유에 주목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비이용 이유 중에서는 열악한 시설(먼 거리, 주차공간 부족)과 부실한 장서개발(읽을 책이 없음), 독서프로그램 비참여 이유는 다양성(기회 없음, 프로그램 모름) 및 홍보 부족(프로그램 모름)으로 나타났으므로 행정당국에 설립 및 공간 확충을 요구하고, 지역주민의 현재적 요구와 자료의 내용적 가치를 정합하는 방향으로 장서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서프로그램은 다양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참여율 제고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독서교육'과 시민의 기대순위가 높은 '독서치료'는 서비스 계층별로 개발·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이 인식하는 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 이용현황과 참여실태, 비이용 및 비참여 이유를 연계·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이용 이유(먼 거리, 주차공간 부족, 읽을 책이 없음)를 해소하여 이용빈도를 늘리고 독서프로그램의 비참여 이유(참여기회 없음, 프로그램이 없거나 모름)를 개선하여 참여율 및 기대수준을 높여야 이용 및 참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그 결과로 공공도서관의 비중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수 있다.

요컨대 대구시는 가칭 '대구대표도서관'의 설립을 계기로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높이고 기초자치단체간 공공도서관 격차를 해소할 때 공공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의 총체적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国立国会図書館. 2015. 図書館利用者の情報行動の傾向及び図書館に関する意識調査:集計レポート.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9111358_po_03_report.pdf?contentNo=27&alternativeNo=>. [cited 2016. 5. 10].
- 김하야나, 김기영. 2014.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이용자, 이용 중단자, 비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지』, 31(3): 201-226.
- 대구광역시. 2015a. 『2014 대구의 사회지표』. 대구: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2015b. 『2015년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 <<http://www.dae-gu.go.kr/citybrand/Default.aspx?cid=111:5&classNo=0&no=7&rNo=7&page=1&list=0&infoID=1532&subInfoID=1532>>. [cited 2016. 5. 14]
- 문화체육관광부. 2015a.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5b.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윤희윤. 2010.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이용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44(2): 73-95.
- 이은희, 이지연. 2011. 스마트폰을 통한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377-392.
- 이희수, 김기영. 2014.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도서관 요구에 관한 연구 - 3개의 지역유형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1): 207-230.
- 장덕현, 강은영. 2012. 부산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인문학논총』, 30: 201-223.
- 한국도서관협회. 2015. 『한국도서관연감 2015』. 서울: 동협회.
- Kayaoğlu, Hülya Dilek. 2014.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public library users in Istanbul, Turkey: Initial survey results." *Journal of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tudies*, 2: 1-19.
- Nzivo, Charles N. 2012. "User Perception on Library Services and Information Resources in Kenyan Public Libraries." *Library Review*, 61(2): 110-127.
- Pew Research Center. 2013. How Americans Value Public Libraries in Their Communities. <<http://libraries.pewinternet.org/2013/12/11/libraries-in-communities/>>. [cited 2016. 5. 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Hyun, and Eun-Yeong Kang. 2012. "Citizen Perceptions and Demands on Public Libraries in Busan." *The Journal of Humanities*, 30: 201-223.
- Daegu Metropolitan City. 2015a. *2014 Daegu Social Indicators*. Daegu: Daegu Metropolitan City.
- Daegu Metropolitan City. 2015b. 2015 Daegu Metropolitan City Brand Citizen Survey Report. <<http://www.daegu.go.kr/citybrand/Default.aspx?cid=111:5&classNo=0&no=7&rNo=7&page=1&list=0&infoID=1532&subInfoID=1532>>. [cited 2016. 5. 14].
- Kim, Hayana, Kim, Giyeong. 2014. "A Study on Factors to the Non-Use of Public Libraries in Users, Former Users and Non-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201-226.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6. *Korea Library Year Book*.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Lee, Eun-Hee and Jee-Yeon Lee. 2011. "A Study on User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Information Service Using Smart Phon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377-392.
- Lee, Heui-Soo and Giyeong Kim. 2014. "Study on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for Library Services Based on Community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ree Types of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207-230.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a. *National Reading Surve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b. *National cultural infrastructure overview*.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Yoon, Hee-Yoon. 201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pace and Facility Use of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73-95.